

번역소설 읽기의 몇가지 즐거움

최근 번역·출간된 장편소설 세편을 중심으로

80년대 문학계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일군의 베스트셀러 시집을 동반한 ‘시의 부상’이었다면, 새로운 연대를 맞아 서서히 떠오르는 징후는 이른바 ‘소설의 시대’를 예감케 하는 다양한 작품들의 출현과 이들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불려지는 활발한 평론작업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작가들의 작품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출간되고 있는 외국작품들의 면면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고전’이라기보다는 현대의 시대상을 첨예하게 반영하면서도 소설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살린 장편소설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무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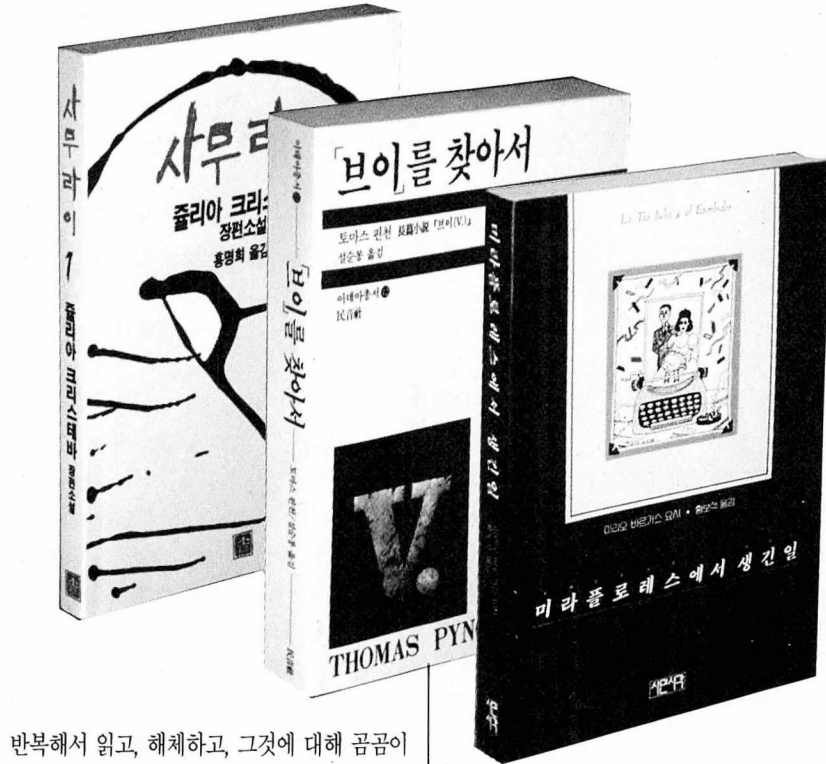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사무라이」(도서출판 솔)는 작년 프랑스에서 출간과 동시에 화제를 모은 소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구조주의 언어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로 이 작품은 그녀의 첫소설이자 자전적 소설이다.

1965년 불가리아 태생의 젊은 여인 올가 파리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그후 올가가 전위적 성격의 잡지 「멧트낭」 편집에 참여하면서 만나게 되는 프랑스 지식인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실제 크리스테바가 관여했던 「텔 켈」지의 멤버들과 주변인물들이 고스란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데, 20세기 지성사를 대표하는 필립 솔레르스·테리다·푸코·사르트르·라캉·콜드만·야콥슨 등이 이름만 바뀐 채 묘사된다.

이들의 관심사인 구조주의, 기호학, 마르크시즘, 인류학, 종교, 동양철학 등에 대한 토론과 지적 탐색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당시 프랑스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를 감지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평범한 개인으로서 그들이 겪게 되는 내면적인 갈등과 고뇌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68년 5월혁명을 바라보는, 혹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식인들의 태도에 대한 예리한 묘사는 이른바 앙가주망논쟁, 그리고 좌우익 이데올로기가 교차하는 혼란한 시대를 통과했던 작가의 절실한 체험을 반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소설을 통해 나와 함께 호흡하는 지적 세대를 위해서 이 시대의 증인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크리스테바가 결국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과 함께 했던 인물들이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고, 해체하고,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작업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매료된 지식인들이지만 한편 “죽음에서까지도 치열하게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세대”였다는 사실이 다.

중국의 문관계급을 뜻하는 ‘망다랭’을 제목으로 차용한 시몬느 드 보바르의 소설과 비교되기도 하는 크리스테바의 이번 작품은 일본 무사계급인 ‘사무라이’가 상징하는 완벽주의, 그리고 사무라이들이 무예에 대해 그러하듯이 지식인들이 ‘썩어진 것들’에 대한 공통된 이상향을 추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나가고 있다.

브이를 찾아서

토마스 핀천의 「브이(V)를 찾아서」(민음사)는 요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소설은 이미 83년 학원사에서 「브이(V)」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바 있다.)

집요한 사실주의 소설양식으로는 산업사회와 테크놀로지 사회로의 급속한 발전상과 그 폐해를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상황에서, 60년대부터 미국에서 등장한 일군의 ‘블랙유머리스트’ 작가들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의식을 추구하면서 세대간의 갈등이나 신구문화의 대립 등을 풍자적 관점으로 조명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효시가 됐다.

토마스 핀천은 이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로, 그의 대표작

「브이를 찾아서」는 특히 복잡한 구성과 실험적 문장으로 이뤄진 난해한 작품으로 알려져 왔다.

서구문명의 몰락과 인류의 위기를 다룬 이 작품은 가상의 제국주의와 ‘과학만능’의 기술 정보사회를 배경으로, 문명사회의 노예로 전락해가는 다양한 인간군상을 보여주고 있다.

1·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1898년부터 1956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半獸상태의 허버트 스텐슬이 우연히 아버지와 관련되었던 ‘브이’라는 신비의 인물을 알게 되어 그 정체를 찾아 끈질긴 추적을 계속한다는 단순한 줄거리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은 그것이 전개되는 시간적 순서나 등장인물들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모호하게 처리됨으로써 책임감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현재와 과거시제를 오가며 대전후의 퇴폐문화의 상징인 뉴욕, 그리고 브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집트·프랑스·이탈리아·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일화들이 소개되는데, 결국 스텐슬은 브이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하지만 ‘브이사항’을 계속하리라는 암시로 이 소설은 끝난다.

평론가들은 ‘브이’가 ‘개인의 진실’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다. 핀천은 주인공과 같이 거의 무생물에 가까운, 즉 사랑이라는 적극적인 개인의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고 문명이라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해가는 인간이 과연 끝

까지 자신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불가항력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가, 혹은 적어도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인식하고자 계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작중 인물의 대화를 통해 그는 “중요한 건 내가 본 것도, 보았다고 믿었던 것도 아니며 결국 문제는 내가 어떤 진실에 도달했느냐가 문제”라고 말한다.

미라플로레스에서 생긴 일

「미라플로레스에서 생긴 일」(사민서각)은 현대 남미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노벨상의 유력후보로 지목되고 있고, 작년 페루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로 출마해 화제가 됐던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소설이다.

작가 자신의 첫 결혼 이야기를 소설화한 이 작품의 원제는 「홀리아 아주머니와 방송작가」로, 공전의 대히트작을 낸 한 라디오 방송작가의 연속극을 병렬적으로 삽입하면서 화자인 ‘나’와 연상의 여인 홀리아와의 사랑이야기가 전개된다.

제3세계적 특성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중남미 역사의 구조적 모순성을 여실히 폭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요사는 이 작품에서 사실적인 표현, 빠른 템포의 전개, 치밀하게 구성된 병치법의 구사로 자신의 문학적 특징을 심분 발휘하고 있는데 밝고 건강한 유머와 재치, 젊은날의 우정과 치기 등을 따뜻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요사는 “사상과 이념의 도구로서의 소설이 아니라 재미로서의 소설”이라는 그의 문학적 신념을 구체화시킨 대표적 작품으로 이 소설을 꼽는다.

이상의 세 소설들은 그동안 작가의 이름만 알려졌을 뿐 국내에 전혀 소개되지 않았던 그들의 비교적 최근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들로 대표되는 현재 프랑스·미국·남미 문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자전적 소설로 크리스테바가 거의 논픽션에 가깝다면 요사는 소설적 장치가 더 두드러져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핀천의 작품은 현대를 풍자한 ‘계시록적 소설’로 그 기법에 있어 새로운 양식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나름의 지적 전통은 국내 소설계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소연 기자